



오는 6월 열리는 남아공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국제축구연맹의 거리응원 엄격 규제 방침에 대해 응원문화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뜨거운 열기를 뽐내었던 광주시민의 길거리 응원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거리 응원 마음대로 못 한다고?

FIFA “후원업체 주관 응원만 인정” 규제에 축구팬들 “지나친 간섭” 거센 비판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시청 앞, 광주 도청 앞과 금남로 등 전국 곳곳에서 온통 붉은 물결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거리응원.

하지만 오는 6월 열리는 남아공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거리응원에 대한 규제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FIFA는 “올해부터 월드컵 공식 후원사가 주관하는 거리응원만 인정한다”면서 “지난 한일월드컵 때와는 전혀 다른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각종 산업단체들의 무분별한 월드

컵 마케팅을 사전에 방지하고, 스폰서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국내 축구팬들 내에서는 각 국가의 자율적인 거리응원을 FIFA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며, 한국의 독창적인 응원 문화를 단순히 상업화의 잣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도 일고 있다.

당장 시청 앞 광장의 사용권을 놓고 FIFA 공식 후원사와 다른 기업체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순수 응원문화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냐, 아니면 대회 후원사에 대한 당연한 권

익 존중이냐, 월드컵 거리응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아공월드컵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는 2010 월드컵 한국대표팀 경기의 거리응원전을 함께 할 공동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기타 공익단체로 선발기준은 ▲공익성 ▲단체규모 및 대표성 ▲거리응원 운영능력 ▲현대차 브랜드 노출 계획 등이다. 결과는 내달 5일부터 약 2주간 심사과정을 거쳐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기성용 아버지’ 광주시축구협회장 됐다

<기영욱씨>

금호고 출신 축구 국가대표인 기성용(21·셀틱) 선수의 아버지 기영욱(53·대한축구협회 이사)씨가 광주시축구협회를 이끌게 됐다.

기영욱 씨는 9일 광주시축구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출석 대의원 15명 중 8명으로부터 표를 얻어 신봉식 상임부회장(7표)을 제치고 협회 수장이 됐다.

기영욱 신임 회장은 대한체육회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원태 전 회장의 잔여 임기 3년 동안 광주시축구협회를 이끈다.

광주 출신 기 회장은 고종수·김태영 등 국가대표를 배출한 금호고 축구부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광양제철고 체육 교사로 재직중이며,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술위원을 거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 회장은 “선·후배들이 ‘이제는 고향 축구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때다’라고 회장직 출마를 권유했다. 많이 망설였는데 뜻하지 않게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광주 축구인들의 가장 큰 바람인 광주 연구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프로야구 ‘새 스트라이크 존’·‘12초 룰’ 시범경기에 적용해보니

빠른 템포에 박진감 넘치고 ‘공격적’

스트라이크존 확대

볼 1개 변화로 ‘타고투저’ 완화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2010 프로야구 더 빠르고 더 강해진다. 시범경기를 통해 각 구단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다. 새 규정에 대한 적응력 키우기는 전력점검 못지않게 이번 시범경기의 중대 과제다.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초룰’과 ‘스트라이크존 확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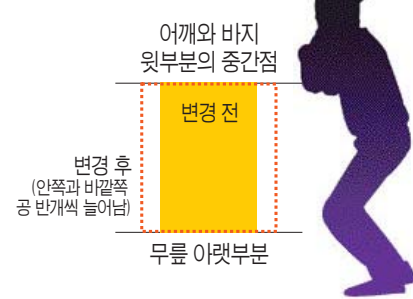
‘12초룰’은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내에 공을 던지도록 하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두 번째 경고시 볼 판정이 내려진다. 빠른 투구를 유도해 경기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좌우로 공 반개 정도 너비해진 스트라이크 존도 도입된다.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보는 추세와 ‘타고투저’완화가 도입 배경이다.

두 룰은 공격적인 피칭과 타격 유도를 통한 ‘스피드업’이 목표다. 과연 의도대로 경기 시간이 빨라졌을까?

지난해와 단순 비교를 한다면 20분가량 경기시간이 줄었다. 9일까지 KIA의 세 경기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31분이었다. 지난해 시범경기 첫 3경기 평균 시간은 2시간 49분이었다. 말 공격이 진행되지 않아 올 시즌보

■ 달라진 스트라이크 존



‘12초 룰’

준비동작 줄여 ‘스피드 업’
두번째 경고 땀 볼로 판정

황병일 수석코치는 “타자들에게 심판들의 성향과 스트라이크 존 변화를 빨리 파악 하라고 했다”며 “또 존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게 적극적인 타격을 주문 했다”고 말했다.

투수와 타자를 총괄하는 코치들의 표정이 갈릴 수 있는 변화지만 ‘공격적인 야구’에 대한 의견은 같다.

황병일 코치는 “몸쪽 존 확대에 위협구가 많이 될 수 있고, 몸쪽 대비가 힘들다는 우려는 있지만 적극적인 투수 공략이 이뤄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강철 코치도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경기 속도가 빨라지고 승부도 더 박진감 넘치게 될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시범경기에서 미리 올 시즌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투수가 로진을 과다하게 뭍히는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볼 판정이 내려진다. 5회 그라운드를 정리하는 클리닝 타임 대신 3, 5, 7회가 끝난 뒤 정비가 이뤄진다.

전지장비의 덕아웃 퇴출 방침에 따라 덕아웃에 자리했던 노트북들도 사라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전태현 위력투... 올 선발 진입 청신호

시범경기 한화에 9대3 승

캠프의 ‘깜짝스타’ 전태현이 선발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9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선

발 전태현의 호투를 앞세워 9-3으로 2연승을 달렸다.

선발로 출격한 전태현은 4이닝을 2피안타 2사구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물리세우며 1회를 마무리한 전태현은 이날 5개의 탈삼진

을 기록하는 등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전태현은 2008년 1차 지명으로 입단했지만 부상으로 앞선 두 차례의 전지훈련은 참가하지 못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참가한 캠프에서 조병현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전태현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호투를 선보이며 선발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KIA는 이날 승리로 시범경기 전적이 2승1패가 됐다. 한화는 3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춘계 초등 야구 개막 7개교 3일간 열전

2010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0일 광주 분광리야구장에서 개막한다.

10일 오전 10시 학강초와 수창초 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대회는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제39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을 겸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4·5회 7점이상이면 폴드게임이 선언되고 준결승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 3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승이 적용되지만 결승전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승부가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찬호 근육통... 실전투구 연기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서 데뷔를 앞둔 박찬호(37)가 가벼운 근육통으로 실전투구를 하려 못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신문 ‘스타 레저’는 9일 인터넷에서 박찬호가 플로리다주 팜파의 스프링캠프에서 조깅 중 엉덩이 쪽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 이날 예정됐던 실전 투구를 늦췄다고 전했다.

박찬호는 이후 상태가 좋아졌다며 마운드에 오를 태세였으나 조 지라디 감독이 나서서 말렸다.

지라디 감독은 “컨디션이 호전됐지만 내일 더 좋아졌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말로 박찬호를 안심시켰다. /연합뉴스



‘피겨여왕’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 기념주화 출시

피겨여왕 김연아의 2010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기념해 출시될 기념주화의 시제품. 후주의 퍼스 조폐국에서 제작된 주화는 4분의 1 온스 금화와 1온스 은화 등 2종이며, 앞면에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경기 장면과 사인, 대한체육회 휘장이 뒷면에는 여왕을 상징하는 퀸 엘리자베스 2세 초상이 새겨져 있다. 가격은 금화가 88만원, 은화가 12만1천원. /연합뉴스